



## 유럽 증시, 긴축 속도조절 기대감 소화하며 상승

### 유럽 증시 리뷰

24일(목) 미 증시가 추수감사절 휴일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11월 FOMC 및 ECB 의사록 발표 이후 부각된 긴축 속도조절 기대감 및 경제지표 호조를 소화하며 상승 마감(EURO STOXX +0.39%, DAX +0.8%, CAC 4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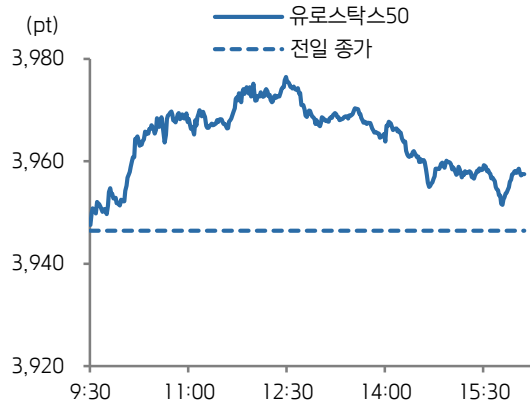
이날 공개된 10월 ECB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에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확인됐으나, 긴축 기간과 폭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보이며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측.

독일 11월 IFO 기업환경지수는 86.3(예상 85.0, 전월 84.5)를 기록하며 예상치 상회.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93.1(예상 93.9, 전월 94.2)로 하락한 반면, 향후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80.0(예상 77.0, 전월 75.9)호 큰폭 개선된 것에 기인.

지난 9월 백악관에서 중재한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키면서 2주 내 미 전역에서 철도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됨. 미국 외에 영국 철도해운노조 역시 조합원 4만여명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연말에 대규모 파업을 예고. 연말 크리스마스 등 대목을 앞두고 다음달 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물류 대란으로 인해 산타렐리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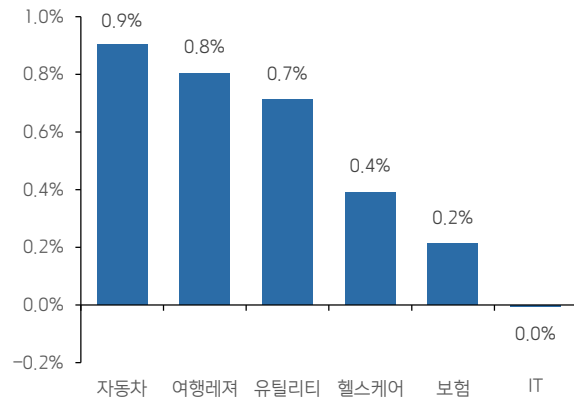
벨기에에서 열린 한 EU 에너지이사회의회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보도가 전해짐. 상한제 도입 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독일, 네덜란드 등 도입 반대 국가들과 275 유로 쿼터라인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대하는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그리스 등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온 회원국들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짐.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S&P500          | 4,027.26  | +0.59% | USD/KRW       | 1,328.44 | -1.76%  |
| NASDAQ          | 11,285.32 | +0.99% | 달러 지수         | 105.85   | -0.21%  |
| 다우              | 34,194.06 | +0.28% | EUR/USD       | 1.04     | +0.14%  |
| VIX             | 20.42     | +0.34% | USD/CNH       | 7.17     | +0.22%  |
| 러셀 2000         | 1,863.52  | +0.17% | USD/JPY       | 138.60   | -0.72%  |
| 필라. 반도체         | 2,786.42  | +1.07% | <b>채권시장</b>   |          |         |
| 다우 운송           | 14,380.42 | +0.32% | 국고채 3년        | 3.691    | -14.9bp |
| <b>유럽, ETFs</b> |           |        | 국고채 10년       | 3.615    | -15.2bp |
| Eurostoxx50     | 3,961.99  | +0.39% | 미국 국채 2년      | 4.477    | +0bp    |
| MSCI 전세계 지수     | 623.24    | +0.79% | 미국 국채 10년     | 3.693    | +0bp    |
| MSCI DM 지수      | 2,697.39  | +0.82% | <b>원자재 시장</b> |          |         |
| MSCI EM 지수      | 932.30    | +0.53% | WTI           | 77.96    | +0.03%  |
| MSCI 한국 ETF     | 57.95     | +1.92% | 금             | 1769.8   | +0.53%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   |
|-------------------------|---|
| <b>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b> | MSCI 한국 지수 ETF 는 +1.9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8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6%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27.2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b>주요 체크 사항</b>         | 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결과 대기심리 유입 여부<br>2. 기준을 인하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장중 중국 증시 움직임<br>3. 위믹스 상장폐지가 국내 게임주들에 미치는 영향  |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 10 월 캐나다 중앙은행, 호주 중앙은행 등 여타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11 월 금통위에서 25bp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긴축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 이는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2.1%→1.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연준의 긴축에 따른 미국의 수요 둔화, 국내 기업들의 자금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수출과 투자 부진 전망이 속도조절에 당위성을 부여했던 것으로 판단. 동시에 인플레이션 전망치(3.7%→3.6%)의 하향정도는 크지 않았던 만큼, 고물가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기초 자체는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전일 공개된 ECB 11 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도 유사한 분위기가 포착이 되었는데, 10 월 75bp 인상 이후에 대부분 위원들이 향후 경기 및 물가 전망을 반영했을 때 속도조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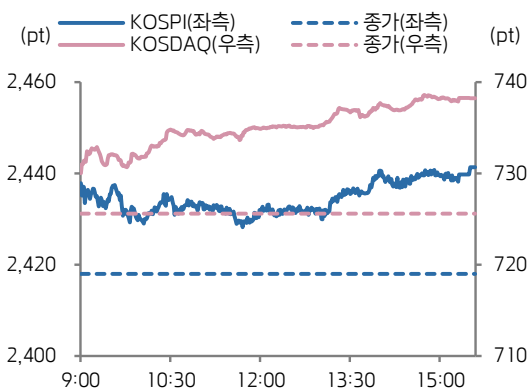
결국 연준이나 한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과 관련해 시장참여자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속도조절이 아닌 최종금리 레벨이 될 것으로 판단. 최종금리 이슈는 지난 11 월 FOMC 이후 시장에서도 반영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본격화 시점은 11 월 CPI와 12 월 FOMC 가 있는 12 월 중순부터가 될 것으로 전망.

또한 11 월 한은 25p 인상 포함 내년 1, 2 월 금통위까지 예상되는 추가 금리인상이 만들어내는 시중금리 및 기업들의 이자 비용 변화가 내년 코스피 순이익 전망과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3 분기 실적시즌 모멘텀은 소강 됐으며 이익 전망 하향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시장에서도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하지만 긴축발 전방수요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상장사들의 이익 전망 하향 관련 이슈는 향후 증시 방향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11/24 코스피 12fwd 순이익 전망치는 167 조원으로 10 월 초 186 조원에서 약 8.7% 하향).

전일 국내 증시는 11 월 FOMC 의사록, 한은 금통위 이벤트를 긍정적으로 소화하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1.0%, 코스닥 +1.7%). 금일에는 미국 증시 조기 폐장 및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시즌 결과를 둘러싼 관망심리 속 기술적인 저항선 도달에 따른 부담 등으로 상단이 제한된 추가흐름을 보이면서 업종간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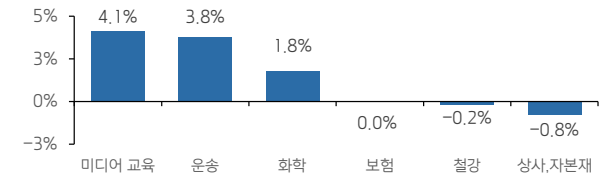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전일 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 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유통량 위반 이슈 등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점이 눈에 띄는 부분. 이는 최근 사우디 투자,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 등으로 긍정적인 추가흐름을 연출했던 게임주들의 추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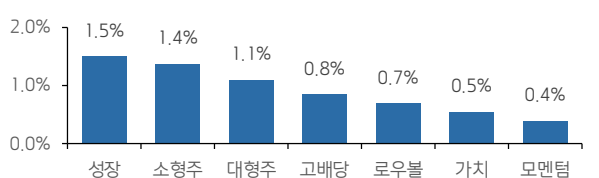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추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추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개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